

[로스쿨 합격기]

잃어버린 시간은 없다

우 미 연

- (영월)석정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I. 들어가며

로스쿨에 입학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개강 후 3일 만에 판례 과제로 새벽 2시까지 잠 못 이루던 그 순간, 제가 다시금 배움의 전당에 돌아왔음을 새삼 실감하며 설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05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제가 10년이 지나 2015학번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니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공부의 기쁨을 기대하며 진학한 로스쿨에서, 저는 지금 그 소망을 넘치게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로스쿨 합격기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 정보와 전략은 무수히 많고, 로스쿨에 진학하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값진 노력과 경험으로 다양한 합격 비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다른 합격생들보다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좋은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 온 경험을 비롯하여 3년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로스쿨 진학을 준비했던 저의 여정이, 앞으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수험자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꺼내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었던 '잃어버린 시간은 없다.'라는 말이 사법고시 낙방으로 꽃다운 20대 청춘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간직하신 분들, 거듭되는 로스쿨 진학 실패로 마음이 지치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II. 법조인의 꿈

“나는 왜 법조인의 길을 가야 하는가.”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법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사법시험과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술한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사법시험 낙방은 저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무엇보다 고된 노동으로 저의 공부를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동시에 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자신감 상실로 인하여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과 싸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준 것이 바로 이 물음과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왜 법조인의 길을 가려 하는가. 나는 왜 법조인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

저는 유년시절부터 가까이에 살고 계시던 조부모님 댁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법조인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언제나 많은 환자들과 공평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찾아온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교회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보살피셨고, 할머니께서는 그들에게 매끼마다 식사를 대접하시며 섬기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제게 법조인이 되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저는 그들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약자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조인이 되어 법과 제도라는 사회적 보호망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것이 약자들의 황폐한 삶을 보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한결같은 꿈은 성실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결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공부를 통하여 법조인의 꿈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법학도의 기본 자질을 익히고 법학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면서, 법률(lex)이 법(jus)이 아니며 법(jus)을 법률(lex)에 담아내는 것이 법조인의 몫임을 깨닫게 되었고, 무질서하고 불공평한 인간 사회에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법’의 역할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롭고 공평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해졌습니다.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강자의 억압과 착취를 저지하는 것이 사후 구제보다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생각하는 바,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 억울한 이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는 왜 법조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저 스스로 대답하는 과정은, 힘겨움에 지친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약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과 생애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정도의 대가와 희생은 감수해야 하며 여기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끝나지 않은 여정인 로스쿨에서의 학업 수행과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저를 일으켜 세워 줄 질문과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법조인이 되어서도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질문과 대답일 것입니다.

로스쿨을 진학하시려는 분들께도 이러한 각자의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험난한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왜 나는 법조인의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시고 스스로의 대답을 내리시는 것이, 모든 입시 과정을 밟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가 반드시 여러분을 로스쿨과 그 이후의 진로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Ⅲ. 대학교 학부생활

“충실한 법학 수업”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논의 중이긴 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고, 저를 비롯한 동기들은 대부분 로스쿨보다는 사법고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법과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사법고시 준비를 위한 기본 3법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학교 학점을 반영하지 않고 시험 성적으로 결과가 좌우되는 사법시험의 특성상, 졸업 전 사법고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인 자기 공부 시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 수업에는 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점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최우선 목표인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학우들에게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불의의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대학교 학부 성적은 매우 중요하고, 고려되는 비중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학점과 학업능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고 학점이 높지 않아도 로스쿨에 재학 중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로스쿨 입시에서는 학점을 성실성의 척도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학부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GPA로 졸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학점은 다른 학우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4년 동안 상수세를 보였고 비교적 법학 과목에서의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기에 감사하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학부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여 배우고 이해했던 것이 계속해서 법학 공부를 하는 내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절감하는 것은, 로스쿨 입학 전에 기본적인 법학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수업 내

용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스쿨의 커리큘럼은 기대 이상으로 훨씬 방대하고 심도 있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법과대학 학부 4년과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분량을 로스쿨 2년 동안에 배우고, 사법연수원 2년 과정으로 다루는 실무 실습과 기록을 약 로스쿨 1년 동안 익히게 됩니다. 제가 한달 여 간 겪어본 로스쿨에서의 학업 생활은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수험 생활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스쿨에서의 학업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대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특별히 학부 수업으로 개설된 실체법과 소송법 수업을 반드시 수강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타 선택과목이나 교양과목 보다는 변호사 시험과목과 연계된 주요 수업을 전부 이수하고 졸업하시는 것이 로스쿨 입시에서의 평가와 로스쿨 학업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법대 분들은, 일차적으로 비법 전공과목을 모두 충실히 이수하시고 여러분의 학점이 있다면 법학 과목을 수강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로스쿨 졸업 후 로펌에 취직할 때 비법 학사 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나 법학 지식이나 소송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일반 법학사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비법학사 출신 변호사의 학부 전공 분야가 그에 관련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으로 어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는 비법 전공 과목에서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 전력하시고, 법학에서의 중요 개념과 쟁점들을 낫설게 느끼지 않도록 여타 교양과목보다는 법학 과목을 이수하셔서 로스쿨에서의 학업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IV. 로스쿨 입시 준비 과정

1. 첫 해의 실패 경험

2012년 1월,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던 중 원서접수 기간을 놓쳐 시험 응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법조인 외의 다른 길이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저는 실망과 혼란 속에서 한 달 간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 동기, 후배들을 만나서 로스쿨 진학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선배는 로스쿨에 진학하니 안정적이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비 부담으로 로스쿨 진학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터였는데, 후배 한명은 전액 장학금으로 또 다른 한명은 70%의 장학금을 받고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사법고시 공부를 그만두고 로스쿨로 전향하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하자 로스쿨에 진학한 친구들은 LEET 시험은 특별히 암기를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성적이 괜찮으면 특별히 걱정할 것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4기 로스쿨에 많은 동기, 선후배들이 재학 중이었고, 로스쿨 입시는 비교적 쉽게 준비할 수 있다고 들었기에 큰 노력 없이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로스쿨 입시를 쉽게 생각했

던 만큼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준비가 미흡했고 성적에 맞는 로스쿨을 지망하지 못했던 입시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한 두 곳 중 한 곳인 모교 로스쿨에서만 2차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결국 낙방하였고, 한 달 간의 방황 끝에 다시금 재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로스쿨 지원 인원이 많아지고 지원자의 스펙이 높아져가는 것을 고려할 때 로스쿨 입시는 절대로 수월하지 않음을 유념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로스쿨이 단 2곳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량적 요소를 꼼꼼히 분석하여 진학에 가장 적합한 로스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로스쿨 입시에 삼년이나 시간을 투자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합격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진학을 목표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히 합격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로스쿨을 적어도 한 곳에 지원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 두 번째 실패 경험

학부 때 법학 과목 수업이 매우 만족스러웠기에 다시금 모교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재차 모교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모교 로스쿨이 입학 기준인 공인영어시험을 TOEIC에서 TEPS로 변경하면서, 몇 달 간 TEPS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변경된 TEPS 시험 준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법학과 특성상 특별히 대학에서 영어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던 저에게 TEPS 공부는 생소하게 느껴졌고, 혼자서 공부한 기간 동안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TEPS 시험장에서 받게 된 진단지를 보고 'TEPS 19'라는 소규모 집단 강의를 두 달 간 수강하게 되었는데, 문제의 구조와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익히게 되면서 그동안 혼자 공부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TEPS 시험보기 직전에는 종로에서 '박진범 텀스'를 수강했습니다. 두 번의 학원 강의는 TEPS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지만, 모교 로스쿨에 실제로 진학하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한 성적이라서 지원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로스쿨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TEPS 공부에 전념하느라 미리 다른 TOEIC 공인영어성적을 준비하지 못했던 불찰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두 군데 모두 2차 면접을 보았지만, 결국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로스쿨의 입시제도가 서로 달라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채택하고 있는 TOEIC 성적을 먼저 높게 받아두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세 번째 입시 준비

첫 해와 두 번째 해는 입시 실패 요인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면 여기서는 3년 동안의 로스쿨 입시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1) LEET

3년간의 LEET 성적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기 했지만, 그다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첫 해 차근차근 공부했던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해에 스터디를 하면서 시험 전 두 달간 꼬박 매일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한 동기들의 추천에 따라 기출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스스로 꼼꼼하게 분석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쏟으며 오답 정리를 확실하게 해 둔 것이 실력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LEET 기출문제는 내용이 외워질 정도로 풀었는데, 점점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여 최신 기출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 해에는 그 동안 누적된 기출 문제의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LEET와 가장 유사한 PEET, MEET 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형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해당하는 PSAT 문제와도 호환이 잘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대에서 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저에게 언어이해보다는 추리논증이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추리논증은 문제 유형별로 이론과 풀이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문제집을 풀고, 인터넷 강의(채현영, 조호현 강사)를 수강했습니다. 특히 언어논리 추론 영역은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 풀이를 보며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론 설명이 첨부된 문제집을 참고하여 스스로 도식을 그려가며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지문이 길고 여러 주제의 지문이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전체 글의 구조를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제한 시간 내에 모든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익숙하고 잘 풀리는 주제의 지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시험 준비 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제제의 지문에 익숙해지기 위하여, '우주 과학사', '서양 철학사' 등의 책을 읽거나, 인터넷 강(윤상곤 강사)에서 제공하는 갖가지 주제별 중요 지문 자료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 한 달은 반드시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매일 풀어볼 것을 당부합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저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과목 모두 시간 내에 다 풀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28개 전후의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시험 당일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과감히 넘어갈 수 있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은 언어이해나 추리영역에 비해 그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특별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서의 언어이해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어휘를 익혀두는 것으로 준비에 갈음하였습니다.

(2) 공인영어시험

공인영어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일정 점수 이상이면 대개 편차 없이 만점 내지는 상위점수를 받기도 하지만, 각 로스쿨의 평가 산정 기준을 알 수 없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TOEIC의 경우 900점-950점이 지원자 평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TOEIC은 학원을 다니든 혼자서 공부하든 단기간에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도 좋고 성공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조금만 하면 금방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성적이 생각보다 쉽게, 단기간에 오르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하시든지 단기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듣기의 경우는, 시험에 익숙해지도록 매일 듣기평가를 풀어보면서 연음이나 모르는 단어로 인하여 잘 들리지 않았던 부분을 체크하고, 모든 지문을 세세하게 독해 한 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며 따라했던 것이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었습니다.

TEPS는 앞에서 실시한 강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TEPS 공부 전에 TOEIC 성적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그동안 익숙했던 TOEIC 시험과의 내용 차이로 인하여 TEPS 성적이 단기간에 향상되지 않아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암기해야 하는데, '경선식 영단어'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단어의 발음과 뜻을 연계하는 방식의 암기법인데 연상기법으로 인하여 생소한 단어 암기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LEET 시험을 치른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한번 내지는 두 번의 TOEIC/TEPS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때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조급해질 수 있어 오히려 실력발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LEET 시험 전에 TOEIC/TEPS 은 점수가 안 나와도 아쉬울 것이 없는 정도의 점수를 만들어 두시고, 8,9월의 TOEIC/TEPS 은 마지막 기회로 마음 편히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자소서와 면접

자기소개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지인들의 자기소개서를 참고로 읽어보았지만,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첨삭 지도해주는 학원 강의도 많았지만, 나의 이야기는 나만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직접 한 자 한 자 스스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첫 해에는 아무런 검토 없이 제출했다면, 두 번째 해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동기에게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는 객관적으로 저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면서, 내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피력하기 보다는 실제 행동한 사건 중심으로 기술하되 그러한 사건에서 내포하는 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쓰라는 조언

을 해주었습니다. 그 조언에 유의하여 새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이전보다 훨씬 짜임새 있는 글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경험들을 강조하는 것이 스스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동기가 뒷받침 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기간이 긴 편은 아니었으나 여러 번의 퇴고를 거쳐 완성도 있는 글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글의 검토를 부탁하지 않고 주변의 지인 한 두 명에게 퇴고를 받았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은 점이 글의 내용을 구성하고 수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는 먼저 스스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스테디를 활용했습니다. 주제와 쟁점별로 찬반 논거가 정리되어 있는 면접 대비용 책을 읽으면서, 각 주제마다 저만의 특별한 논거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과 스테디를 구성하여, 서로 면접관이 되어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모의 면접을 시행하였습니다. 스테디의 장점은, 자신이 모르고 있던 평소 말할 때의 버릇이나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빛, 손짓, 말투, 표현력, 논리력 등을 서로 검토해주면서 실제 면접을 대비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모의면접의 내용은 중요 쟁점이 될 만한 기본적인 법학 문제와 당시의 시사 쟁점 하나씩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팟 캐스트를 이용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 방송도 청취하면서 저 나름의 근거들을 구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면접 시에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혹시 교수님들께서 반박하시면 자신의 논리를 최대한 설명하면서 교수님의 질문 또한 타당하므로 고려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되, 본인이 실수한 것을 깨닫게 되면 겸허히 인정하고 배우겠다는 자세를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다른 질문들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것이 면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 마치며

올 해는 감사하게도 지원한 로스쿨 두 곳 모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학한 로스쿨에서 고단한 배움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의 시간을 딛고 드디어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학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힘들더라도 감사히 여길 따름입니다.

세 번의 도전으로 로스쿨 진학에 성공한 저의 실패의 경험이, 로스쿨 입시 준비로 고민하거나 또한 로스쿨 입시 실패로 두려움을 가진 많은 지원자 분들에게 작은 도움과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했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 목표를 성취한 지금 이 순간에도 '실패했던 그 시간들이 절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음을'을 고백합니다. 덕분에 지금의 성취와, 그 성취를 감내할 만큼의 성숙한 인격과 인생의 동력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야.” 사법고시에 낙방하고 또 다시 축소된 자야로 살고 있던 저에게 말씀해 주신 지인의 위로였습니다. 사법고시도, 로스쿨 진학도, 취업도 그리고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여러 목표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합격, 불합격이라는 이원적인 판단으로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희생한 나의 모든 수고와 시간은 누구도

어디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나의 지난 인생에 대한 이해와 격려가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괴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이러한 이원적 평가로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은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고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기능하고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 합격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